

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, 국토부-지자체-민간-공공기관이 함께 만든다

- 28일 CTX(충청권 광역급행철도) 거버넌스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
- CTX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...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, 대전광역시(시장 이상우), 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최민호), 충청북도(도지사 김영환)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(이하 CTX)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‘CTX 거버넌스’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.
-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(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, 1.25)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(x-TX)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2월 16일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‘28년 착공, ’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.
 - 국토교통부는 목표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·세종시·충청북도 등 지자체,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&C(대표사) 및 삼보기술단(설계사),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,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(교통研)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.
 -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,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.
 - 특히,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,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,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소토록 하는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.
- 28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,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 - 또한, 국가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, 공사기간 공정·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,
 -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·법률·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·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.

- CTX 거버넌스 출범에 대해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광역생활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 180km/h로 달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(CTX)가 필수적”이라며, “CTX는 향후 타 지역에서 광역급행철도(x-TX)를 건설·운영하는데 모범사례가 되어 지방권 메가시티 확산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“또한,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,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기획하는 민간,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, CTX를 이용하게 되는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추진해야 하며, CTX 거버넌스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CTX 거버넌스에 참석할 예정인 지자체 국장급 인사들도 CTX 사업의 성공을 위해 CTX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- 대전광역시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“정부대전청사역을 시점으로 하는 CTX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국토교통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며, “정부대전청사역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이어 향후 도시철도 2호선까지 환승토록 하여 대전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세종특별자치시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은 “행정수도 세종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인 만큼 지역 주민과 세종을 찾는 분들이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충청북도 강성환 균형건설국장은 “CTX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여 청주 시민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, “대전·세종에서 청주공항 접근성이 높아져 청주공항이 내륙 거점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	문희선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	서형우 (044-201-4633)
	대전광역시 철도광역교통과	책임자	사무관대우	백동현 (044-201-3984)
		담당자	과 장	이득규 (042-270-6040)
	세종특별자치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	책임자	사무관	유민호 (042-270-6060)
		담당자	과 장	정래화 (044-300-7910)
	충청북도 교통철도과	책임자	사무관	유동석 (044-300-7921)
		담당자	과 장	김원목 (043-220-4250)
			사무관	손정훈 (043-220-4261)

□ **회의 개요**

- (일시) '24. 2. 28.(水) 10:00 ~ 11:00
- (장소) 정부세종청사 6동 443호(중회의실)
- (참 석) 국 토 부 : 철도국장, 철도투자개발과장, 담당사무관 등 3명
 지 자 체 : 대전시·세종시·충북도 국장·과장 등 6명
 지원기관 : 철도공단 건설본부장, 민자철도센터장 등 2명
 업 계 : DL E&C, 삼보기술단 등 2명

□ **주요 내용**

- ①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절차·일정 설명
- ②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지원기관 역할 소개
- ③ 지자체 건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논의

□ **세부일정(안)**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0:00~10:05	05'	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	사회(국토부)
10:05~10:15	10'	철도국장 및 지자체 국장 인사말씀	국토부·지자체
10:15~10:20	05'	사업추진 경과 설명	DL E&C
10:20~10:25	05'	향후 추진 절차 및 목표 일정 설명	국토부
10:25~10:35	10'	지원기관 소개 및 사업절차 별 역할 설명 * 국가철도공단 →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順	각 지원기관
10:35~10:50	15'	지자체 별 건의 및 협조요청 사항 * 대전시 → 세종시 → 충청도 順	각 지자체
10:50~10:55	05'	회의 내용 정리 및 마무리 말씀	국토부 철도국장
10:55~11:00	05'	기념 촬영	참석자 전원